

건축사사무소 대비 1.1% 정도인 구조설계사무소에서 구조도면을 작성하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요?

그것도 프로그램 돌려서 나오는 구조도면 자체가 조악한 수준이라서 건축디자인에 맞춰서 일일이 조정해야 하는데 계산하는 공학이 디자인하는 건축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세조정 해서 구조도면을 정확하게 작성할 거라는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분리된 이유가 뭔지 아니 분리는 되었는지를 아예 모르고 업역 확보에만 혈안이 된 집단들의 반대 논리에 매몰되어 이런 법안이 발의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업무의 병합과 분리는 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야 할 텐데 참 안타깝군요.

건축사는 구조계산서를 근거로 미세조정이 필요하면 구조기술사에게 의견을 물어 조정하거나 변경을 요구합니다. 같은 구조계산서를 가지고 도면을 작성하는데 그동안 꾸준히 도면을 생산해 온 건축사사무소가 건축, 설비, 전기, 소방 등의 간섭체크를 해가며 도면을 작성하고 조정하는 것과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기술가가 그것도 개설 비율 0.11%의 사무소가 도면을 작성할 때 누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같은 도면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감리하는 구조감리 제도 때문에 국민들의 재정 부담만 훨씬 더 많이 늘어났는데 불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그러한 부담을 가중시킬 생각인가요?

사고만 나면 벌어지는 이 안타까운 행정입법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군요.